

“학원 과외 허용시 유아교육 본질 잃는다”

임시국회 개원 앞두고 〈학부모 연대〉 세미나서 반대



개정될 학원법상에 유아대상 과외가 금지돼야 함을 〈학부모연대〉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있다.

94.2.18

유아 과외교습 허용여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입법 예고됐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용에는 유아대상 과외를 전면 금지했으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 조정으로 인해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공동대표 전풍자 등)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유아대상 과목별 과외 교습 반대’ 세미나를 개최해 “유아를 필히 과외 대상에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풍자 공동대표는 “92년 현재 92.3%가 특기나 과외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고 밝히며 “이렇듯 대다수의 유아들이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유아 대상의 전 과목 과외가 허용된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해 모든 유아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또 “학원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관회의에서 부결되어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었던 것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조기교육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으며 “교육을 돈 버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학원에 교육의 토대가 되는 유아교육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교육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의 각종 교습 허용을 주

장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각종 지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자”며 학원법 개정시 유아대상 과외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대상 한글교육에 대해 발제한 주영희(인천교대. 유아교육학) 교수는 유아들의 읽기, 쓰기 능력이 듣기, 말하기 능력과 함께 발달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글자의 기능면만을 강조해 학습지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택한 지도법은 결국 아이들에게 정서적 긴장감을 유발시켜 글쓰기(짓기)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고 말해 현재 학부모들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취학전 어린이의 수학교육에 대해 발제한 한국교원대 전평국(수학교육) 교수도 학부모들이 학습지나 사설학원을 통해 취학전 자녀들에게 과다한 기능주의적 수학 경험을 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취학직후에는 얼마동안의 기간에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계산 기능면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문제해결력 등에서)이 나타난다”며 “이는 취학전에 획득한 학습경험의 질과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일례”라고 말했다.

학부모 연대는 이와같은 현행 유아교육의 문제점이 ‘유아대상 과외 허용’으로 흐를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법 개정시 ‘유아대상 과외 제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